

생계단속과 생산자의 입장



백명기
(본회 부회장)

어떤 습관이나 제도를 바꿀때는 반드시 찬반론이 따르게 된다. 75년 이후 6년간이나 도계법 시행에 따른 찬반론이 바로 좋은예가 된다. 어떤 법이나 제도가 그시대 그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면 좋은 법이 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많은 시민을 괴롭히는 법이 될 것이다. 도계법을 시행함에 따르는 각 분야의 입장을 살펴 본다면 생산자의 입장, 생계상인의 입장, 도계업자의 입장, 소비자의 입장 등을 들수 있다. 필자는 생산자로 닭을 기르고 있는 양계업자의 입장에서 생계단속에 대하여 기술코자 한다.

성서에 “네가 차든지 더울든지 하기를 원하노라~미지근하여~내입에서~토하여 내치리라”라는 말이 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한마디로 주체성이 없는 행정이 아니었든지 묻고싶다. 그 제도가 그 시대의 타당한 제도였었다면 왜 지금껏 원점에서만 맴돌고 있으며 그럴때마다 생산자만 골탕을 먹어야 되는지 안타깝기 그지 없다. 새로운 제도란 국민에게 보다 전전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어야 된다고 본다. 도계법에 따른 생계단속이 과연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이익이 되고 전전한 것이라고 보면 왜 단속때마다 양계업자만 손해를보고 법을 지키려는 국민만이 손해를 보는 것일까 깊이 반성하고 시급히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법이나 제도가 잘못 되었던지, 그것을 시행하기에 시기상조이던지, 아니면 시행 방법이 불합리 했던지 셋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하루속히 생계단속에 따른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최대한 개선하여 이로 인한 각 분야의 입장이 다 같이 손해를 보지 않은 좋은 방안이 강구 되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다. 반드시 최선의 방법이 있을것으로 믿는다. 다시 말하면 어느 한 분야만 이익이 되어서도 안되고 어느 한 분야도 손해가 되며 죽어버리는 결과가 와서도 안된다고 본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의 정착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다.

도계법 시행에 따라 문제가 되는 생산분야 유통분야 도계분야가 다같이 문제점을 강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행정당국에서 반영시켜 준다면 좋은 결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한 분야의 주장만이 반영되어서도 안될 것이며 종합적이고 기획적인 방안을 수립한 다음 결단있는 시행만이 이 문제를 속히 정착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 기회에 생산자들의 주장을 들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하면하고 말면 말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마다 단속한다는 말을 꺼내놓고 단속을 몇일 실시하다가는 말고 해서 결국 육계 값만 하락시키는 결과가 된다. 다음은 “단속을 해도 유통이 막히지 않도록 생산조절이나 적절한 계절과 시기를 선

택하여 실행 함으로써 육계값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셋째는 “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계품 유통이 시기 상조다 그 이유는 소비자가 원치 않고 도계업자들의 기업가의 자세가 문제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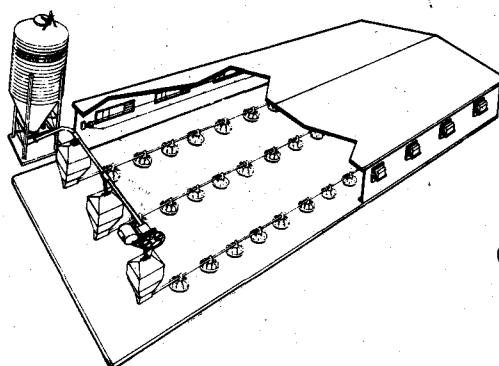
생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말 할 것도 없이 도계법 시행으로 말미암아 당분간 시세에 하락으로 지장이 있어도 앞으로 육계산업 발전에 좋은 전환점이 된다고 보면 꼭이나 다행한 일이요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육계 산업이 발전되고 대규모화 될수록 선진국이 걸어온 길이 그러했듯이 모든 생산이 기계화 되고 모든 유통이 계열화 되어 간다. 이제 우리나라의 육계 산업도 점차 대규모화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잡한 사육이

나 유통구조를 시원스럽고 대량으로 유통되는 체재로 들어가야만 안정되고 발전적인 산업이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절한 단속 방법을 통해 도계유통이 유리유통질서에 뿌리를 내릴 때 까지 단속의 고비를 늦추지 않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다.

이에 생산자의 입장에서 부언코자 하는 것은 무모한 단속을 지양하고 계획적이고도 생산적이며 건설적인 방안을 수립하여 생산자와 유통을 담당한 상인이나 도계업자가 다같이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에서 조금씩은 양보가되고 결과는 플라스가 되는 좋은 기회가 올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쵸어 타임의 어거방식에 의한 자동급이의 도입은 축산의 혁명입니다.



농장의 자동화를 하시고자 하실 때는 언제라도 상의하여 주십시오. 놀라운 생산성과 경제성은 가지신 분만이 아닙니다.

倍 鎮 洋 行 723-4125
OHJIN CORPORATION 723-4128